

유월절과 출애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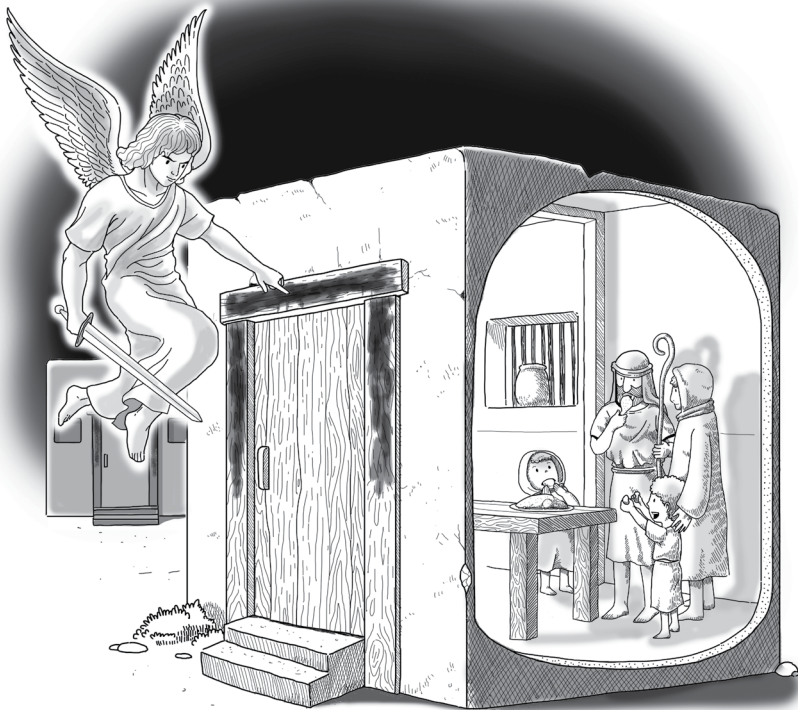
출 12:1~42

찬송가 210장 (내 죄 사함 받고서), 은혜찬송 192장 (오 주님께서)

오늘 배울



1. 유월절과 출애굽의 관계를 압니다.
2.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음을 압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무론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를 볼 때에 너희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 12:12~13)



을 이해하기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 주시고 모세를 통해 애굽에 온갖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계속해서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바로의 장자부터 여종의 장자 또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곧 어린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칠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그 어린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두루 돌아다니며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실 때에 어린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와 유월절입니다. 그날 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고 바로왕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결국 바로왕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백삼십 년 만에 애굽 땅에서 나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양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유월절과 출애굽은 죄로 인하여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피로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 구원받은 날이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 12:13)

Now the blood shall be a sign for you on the houses where you are. And when I see the blood, I will pass over you; and the plague shall not be on you to destroy you when I strike the land of Egypt (Ex 12:13)

-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2 애굽 땅에 내린 열 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1 애굽 땅에 내린 열 가지 재앙을 차례대로 글이나 그림으로 채워 봅시다(출 7:20~11:6).

①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③ 이 재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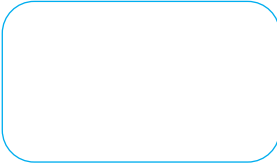
⑤ 악질 재앙



② 재앙



④ 파리 재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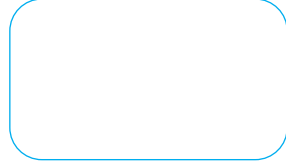
⑥ 독종 재앙



⑦ 재앙



⑧ 메뚜기 재앙



⑨ 재앙



⑩ 장자 재앙



- 2 유월절은 한자로 逾越節『넘을 유(逾), 넘을 월(越)』인데 출애굽에서 유월절의 의미를 정리해 봅시다(엡 1:7, 히 10:17~18).

- 3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빈칸을 채워 봅시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죽임 당하기 전에 예비됨 (출 12:3)	(벧전 1:20)
아무런 흠이 없는 것 (출 12:5)	(요일 3:5)
유월절 행사에 죽임을 당함 (출 12:6)	(마 27:50)
(출 12:46)	죽으신 후 뼈가 꺾이지 않음 (요 19:36)
그 피를 문설주와 안방에 발라 심판을 지나게 함 (출 12:13)	(엡 1:7)

- 4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정리해 봅시다(고전 5:7~8, 골 1:6).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일

출 12:13

의

고전 5:7

화

고전 5:8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수

엡 1:7

목

골 1:6

금

벧전 1:19

토

벧전 1:20



무교절

무교절은 유월절과 겹치면서 니산월 14일부터 일주일간 계속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황급히 탈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출 12:39). 그런데 이 절기 동안에는 무교병이라고 하는 ‘고난의 떡’(신 16:3)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무교병이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말합니다. 떡이나 빵에는 누룩이 들어가 발효되어야 제 맛이 나는데, 이 누룩이 없다는 것은 산해진미(山海珍味)가 아닌 맛없고 형편없는 음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떡을 먹을 때마다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겪었던 고난과 괴로움을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그들을 고난과 괴로움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한편 무교병은 신약에서 구속받은 백성이 먹어야 할 영적 양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고전 5:8). 왜냐하면 성경에서 누룩은 종종 전염되고 확산되기 쉬운 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마 16:5~12).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고전 5:8)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므로 우리는 죄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우리가 다시는 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질문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6~17절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요일 5:16~17)

죄의 삶은 사망이라는 말씀(롬 6:23)에서, 사망의 의미는 육신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심판 받고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들어가는 것까지 말합니다. 원래 모든 죄의 삶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대로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았어도 노하는 죄, 미련하다고 하는 죄 등 마음과 생각, 말로 하는 모든 죄의 삶은 사망이고 불못에 던지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벧전 3:18)

예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한 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죄나 도덕적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한 법이 생겼습니다. 곧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법이 그것입니다. 에덴동산에서는 먹지 말라는 것을 먹는 것이 죄였지만 지금은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요 3:18)

그래서 위에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곧 믿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의 은혜를 배척하거나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썩어질 이 땅의 축복을 더 바라는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영혼이 지옥에 가는 죄가 아니라 육신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고전 5:5)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육신을 멸하기도 합니다. 징계로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심하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도 심한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